



조선시대에는 전국의 군량미를 지키던 장소에서,
현재는 국민의 데이터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

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이 곳은 KT 용산 IDC 입니다

DIGICO KT

태조 4년(1395년)부터 전국의 군량미를 보관하던 장소인 '군자감 강감 터'는 현재(2021년) KT 용산 IDC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
KT 용산 IDC는 국내 최대 테라급 네트워크 구축으로 Cloud / BigData / 5G 대용량 트래픽 전송이 보장되며, 10만대 서버 운영이 가능한 서울권 최대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급 데이터센터 입니다